

“2공항 용역·군사기지화 내용 공개” 요구

오영훈 지사, 어제 국회 찾아 기자회견 진행 국토부 “2공항,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운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부에 대해 “북핵특위 보고서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핵무기 전략 도서화’ 논란 등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반대와 관련 용역보고서 즉각 공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지사 뿐 아니라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주도 도정 책임자로서 여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

청한다”며 ▷군사기지화 내용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울 것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안에 공개할 것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문제 국토부 장관의 입장을 내놓을 것 등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는 논의 내용은 제주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며 “제주도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을 도대체 누가 밀실에서 주도하고 있느냐.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부는 추진 과정을 감추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

이어 “국토부가 보완용역 결과를 두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북



오영훈 지사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특위 보고서·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사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원희룡 장관은 아예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쉬쉬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도민들과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저격도 이어 갔다. 오 지사는 “원희룡 장관은 도지사 재임 당시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토부 역시 공군 등에서 관련 내

용이 거론되자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추진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한다는 게 달라진 입장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전직 지사로서 도민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인증 취소 친환경농가 행정심판 통해 희생 인근 과수원서 표류비산 주장하며 행정사 의뢰해 해결 중앙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인용… “유사 사건 해결 기대”

인근 밭에서 날아 온 농약성분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인증 자격을 잃었던 농장주가 행정심판을 통해 희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접수된 유기농산물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 12월 20일자로 서면심리를 통해 인용재결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28일 서귀포시 소재 비전설계행정사김형준사무소에 따르면 청구인 K씨는 친환경농가로 인정받아 지난 18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 6월말 인증기관 J기관에 인증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시료채취 결과, 유기합성농약성분 2종이 검출돼 인증기준을 위반했다며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월 후인 8월에 해당 농가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K씨는 인근 과수원인 인접 농가에서 농약살포로 인한 표류비산이

라고 주장하며 부당성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성분 검사를 한 데이터에서 검출한 농약 성분으로 봤을 때 표류비산이 아니고 직접 살포한 농약성분으로 간주된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K씨는 행정심판을 의뢰했고, 김형준 행정사는 친환경농어업법 제정 목적인 공익적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행정절차법(청문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형준 행정사는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 인증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결과가 인용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며 “이에 향후 친환경농가(전국 5만5000가, 제주 1221가)들이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 서귀포시, 연금·수당도 향상

서귀포시가 내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내년에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01억원에 견줘 33%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내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성인주간활동,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단가를 기존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5% 이상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부 제한기준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시설이 전무했던 서부지역에(가칭)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개원한다.

백금탁기자

축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대폭 확대

서귀포시, 144개 사업 207억원 투입... 신규사업도 발굴 축산업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 적극 대응

서귀포시가 내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29개)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곡물 가격 급등, 3고 현상으로 축산업 생산비 증가,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를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2023년 축산분야 144개 사업에 207억원(국비 53, 도비 96, 읍자 27, 자담 31)을 집중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2개 사업·사업비 128억원에 견줘 79억원 늘었다.

시는 한(혹)우 개량 및 암소 감축 지원, 고품질 대비 시설 장비 확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감귤박 사료 자원화, 곤포사 일리지 비닐랩 지원 등 33개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정경지역 유지를 위하여 52개 사업에 3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등을 위해 21개 사업에 19억3000만원을 투입한

다.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및 공공처리 영역 확대를 위한 12개 사업에 68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말 산업 특구이미지를 활용한 승마산업의 활성화 및 말 농가 소득 창출, 스마트 축산산업 조성, 곤충·양봉농가 지원 등 26사업에 35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한우 유전체 분석, 기후변화 대응 끝말질병 예방사업,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펫티켓 문화 조성,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등 29개 신규사업 발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 및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이호테우해수욕장 말듬대 관광객들이 말듬대를 구경하고 있다. 28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말듬대를 구경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마을회관 시설 보수 지원 내년 1월 10일까지 공모

제주시는 마을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 보수 지원 사업 등 대상자를 내년 1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을복지회관 시설 보수는 마을회 명의 건물로 건립 연수가 5년

이상이면서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장비 구입은 내용연수 경과 등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주민공동시설 지원도 진행한다. 단체에서 사용하는 장비 구입이나 마을 소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용량 : 20kg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